

한말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기의 복식문화 소고

(The costume of the Wejung-chuksa period in hanmal)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정혜경

目 次

I. 서론

II. 위정척사사상에 대한 배경적 고찰

III. 위정척사사상에 의거한 복식관

1. 서양물품의 배척 및 교역에 대한 반대
2. 복식제도에 대한 인식과 복제개혁에 대한 반응
3. 두발에 대한 인식과 단발령에 대한 반응

IV. 결론

ABSTRACT

I. 서론

본고는 18세기 후반-19세기초에 걸친 실학과 의 복식문화에 대한 줄고¹⁾에 뒤이은 것으로 19세기 중엽에 팽배하였던 위정척사사상과 이에 의해 제기된 복식문화에 대한 제양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대내외적 위기를 맞이하였으니, 내적으로는 봉건질서의 동요와 외적으로는 서구열강의 진출에 따라 무력위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 속에서 19세기 중엽에 각 사회집단의 역사인식에 따라 조선의 사회질서를 재구성하고자 대두된 사상이 있었으니 곧 위정척사

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등을 들 수 있다.²⁾ 그 중에서 위정척사사상은 대외적으로는 서양의 침략에 반대 항거하는 척사, 척양, 반침략사상을 지니며 대내적으로는 유교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예속을 고수함으로써 서양의 도전을 극복하려 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사상이었다.

이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는 대개 개화파와 대립된 입장으로서 전통적 관념과 제도에 매달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폐쇄적 한계성을 지녔다는 비판의 소리가 지배적이지만, 반면에 유학의 근본개념을 재인식하고 유교질서를 재정립하려는 학문적 추구하고 실천적 의지를 지닌 것으로서, 그들의 청렴결백한 삶과 반침략적 성격은 긍정적으

1) 정혜경,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II) - 18세기 후반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4, pp.101~112.

2) 진용하,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부, 1989, p.19.

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19세기 중엽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위정척사사상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들이 지향하였던 위정(衛正) - 유교적 사회규범의 고수 - 과 적사(斥邪) - 서양 세력의 배척 - 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정척사사상이 주자학의 테두리 안에서 존립한 사상이라는 한계를 전제로 하여 이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아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복식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대응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이항로(李恒老, 1792~1868)를 중심으로 하여 위정척사사상을 전개한 유림의 문집 중 복식에 대한 글들을 발췌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위정척사를 이루기 위하여 실천한 여러 가지 행동 중 복식과 관계 있는 사항으로서 위정척사사상에 의거한 복식관을 첫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양의 물품을 배척하는 교역에 대한 반대와 둘째, 복제의 개혁을 반대하여 전통 복제를 고수하는 태도와 셋째, 단발령에 항거하였던 이론과 행동양식들의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았다.

II 위정척사사상에 대한 배경적 고찰

위정척사사상은 실학사상이 약화된 후 지식인들의 사상계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서, 특별히 19세기 중엽의 민족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선적으로 자기의 가치체계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위정척사란 말은 문자적으로 정(正)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사(邪)를 물리치자는 것으로서, 이때의 정(正)이란 주자학적 가치질서였으며 사(邪)는 서구적 가치질서였다.

위정척사사상의 원류는 이항로로서 그는 강경

한 척화론(斥和論)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김평묵(金平默, 1819~1891), 유중교(柳重教, 1821~1893),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유인석(柳麟錫, 1842~1916)등 주로 화서(華西)학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송시열이 주장한 배청송명의리론(排淸崇明義理論)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척양(斥洋), 척왜(斥倭)의 척사리론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확신하였다.³⁾

위정척사사상은 중국이 청으로 교체된 뒤 송시열(宋時烈)의 강한 존화양이(尊華攘夷)사상을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이 소중화(華)이며 서양과 일본은 오랑캐(夷)라고 규정하여, 주자학만을 고수하고 다른 학문이나 사상에 대하여 특히 서양의 종교와 학문 과학기술에 대하여 까지 구별없이 배척하였던 것이다. 강재언은 위정척사사상이 송시열의 존화양이사상에 직결되고 나아가 송시열의 반청적(反淸的) 양이(攘夷)사상은 주자의 반금적(反金的) 양이사상에 직결된다고 하여 주자, 송자, 이항로는 이 존중화 양이적의 사상에 서로 통하는 것이라 보았다.⁴⁾

척사운동이 대두된 시기는 18세기말 천주교의 유포(流布)에서 비롯되었으며 19세기 중엽까지는 사학(邪學)으로서의 천주교를 배척하는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을 기점으로 하여 동점해오는 서양세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0년대에는 양적(洋狄)을 격퇴하는 주전론(主戰論)이 전개되었고, 1870년대에는 일본의 개국과 화호(和好)를 반대하였으며, 1880년대에는 <조선책략(朝鮮策畧)>을 계기로 이를 비판하는 만인소(萬人疏)등을 통하여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자 위정척사운동은 또다른 양상을 띠게 되어 단발령과 민비 살해사건을 계기로 의병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⁵⁾

3)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35~39.

4)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p.60.

5)李喜桓, 위정척사론 연구의 검토, 군산대 논문집, 9, 1984, pp.267~268.

오늘날 위정척사사상에 대한 평가로는 주자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립하는 본질적 한계성으로 인한 배타적 복고주의로 오히려 부국강병의 길을 저해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민족주체 의식을 지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는 대개 개화파와 대립된 입장으로서 전통적 관념과 제도에 매달려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녔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초야에 묻혀서 강학과 도의적 단련에 전심한 그들의 청렴결백, 불굴의 기개, 순의와 정신등 당시의 집권층 가운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미덕, 그리고 그 사상의 반침략적 성격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Ⅲ. 위정척사사상에 의거한 복식관

1. 서양물품의 배척 및 교역에 대한 반대

19세기 중엽 조선이 당면한 여러문제중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던 것은 서양의 통상요구와 그 이후 계속 빈번하게 감행된 무력침략으로서, 1842년 아편전쟁으로 대국인 중국이 항복하여 문호를 개방하게되자 조선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병인양요를 맞이하자 위정척사론자들은 이전까지의 자기질서를 유지하고자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타하던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의 침략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여 양물금단론(洋物禁斷論)⁶⁾, 양물배척론(洋物排斥論)⁷⁾, 어양론(禦洋論)⁸⁾으로 서양물건을 배척하는데 앞장서기에 이르렀다. 즉 처음 운동이 대두되는 과

정에서는 이단을 배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나, 침공사건을 계기로 서양을 배척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양물품배척론은 내수(內修)를 더욱 강조하는 주자학적 사상에 의거하는 실천적 이데올로기로서 이는 서양의 충격 앞에서 민족보존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⁹⁾

위정척사론자들이 서양물품을 배척하고 교역을 반대하는 이유는 산업구조상 열세에 놓여있는 국내산업이 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물품의 유입과 더불어 양학과 양교도 유입되어 조선인을 서양화시켜 인격을 파괴하고 나라의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이항로는 서양과의 교역을 반대하는 이유를 양교(洋敎)는 사람의 심술(心術)을 미혹케하고 국가를 해롭게 하고 양학(洋學)은 우리의 의상을 더럽히고 화색(貨色)을 약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

또 최익현은 병인양요(1866)가 발생하자 “근일의 소위 서양물건이라는 것들이 거개 기괴한 기술과 지나친 공교(工巧)로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기구여서 민생들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기괴한 기술과 지나친 교묘함은 손으로 생산되어 날마다 여유가 있고, 우리의 의복과 먹을 것의 자료는 땅에서 생산되어 해마다 부족하니, 부족한 것으로써 넉넉한 것과 교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곤란해지지 않으며, 날마다 생산되는 수로써 한해에 한번 생산되는 수를 상대하니 그들이 어찌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이리므로 그들은 자급자족하고 왕래가 무상하

6) 奇正鎮의 양물금단론, “洋物을 搜括하여 이룬 거리에서 불태우고 그후에 留來하는 者에 대하여는 外寇와 交通하였다는 形事로서 시행케 하라.”

7) 李恒老의 양물배척론, “...修身齊家하여 나라가 바르게 된 즉, 洋物이 소용없게되어 交易之事가 없게 되면 奇技淫巧가 통할 수 없고... 저들은 어찌할 수 없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8) 金平默의 어양론: “한번 物資가 교역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먹고 살길이 끊기고 流血千里할 것이니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살겠는가.”

9) 金鎬城, 한말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시론적 검토, 서울교대논문집, 10, 1977, pp.52~53.

10) 李恒老, 華西集, 卷3, 疏詞 辭同義禁疏.

며, 민간에 섞여 거처하며 몰래 그 교를 펴게 되어 ... 금수로 타락하여 갑니다.”¹¹⁾고 하여 서양과의 교역이 불리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즉 개항 전에 이미 서양의 물건들이 널리 퍼져있었으며 특히 서양직물은 19세기를 전후하여 청과의 민간무역이 확대되면서 판매되기 시작하여 19세기전반 당시 서울의 풍물을 소개한 한양가에는 면포전(綿布廛)에서 서양목(西洋木), 서양주(西洋紬)를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서양직물은 19세기를 전후하여 청과의 민간무역이 확대되면서 판매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또한 개항이전의 복면개시 교역품목 중에는 장화(長靴) 및 반화(半靴), 연초(煙草)지갑, 안경, 콤파스형기(衡器), 사치품 등과 더불어 구주물화(歐洲物貨), 특히 영국샤츠지가 있다.¹³⁾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항로는 프랑스 함대의 침입(1866)이후 서양물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왕의 일상복식기용 중에서 이를 가려내어 소각함으로써 본을 보여야만 이 나라가 바르게 설 것임을 상소하고 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의복, 음식, 기구 등을 날마다 항시 접하는 즈음에 있어 한가지 것이라도 서양물건이 그 사이에 낀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찾아내어 대궐 마당에 모아놓고 소각하여 분명하게 좋아하고 미워하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신다면 이것은 즉 극기(克己)하고 정심(正心)하신 부험(符驗)으로서 전하의 몸이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하는 것으로서 궁중의 종척(宗戚)들이 전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 전하의 왕가가 시정될

것이요, 이상과 같이하는 것으로서 조정을 경동(警動)시키면 안으로는 조정으로부터 밖으로는 먼 변방에 이르기까지 전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 전하의 국가가 시정될 것입니다.”¹⁴⁾

그리고 그 자신도 이를 실천하여 서양옷감은 걸쳐보지 아니하였고 집안에는 서양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¹⁵⁾

그러나 이같은 호소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후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한 서양의 것에 의해 토산물은 쇠퇴하게되고 외국물건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정척사론자들이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서 서양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것만 사용함으로써 수입이 저절로 감퇴되고 저들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전하가 할 수 있는 계책은... 수신제가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면 서양물건은 그 쓰이는 곳이 없게 되어 교역이 끊기게 됩니다. 교역이 끊기게 되면 저들의 기기음교(奇技淫巧)의 물건을 사지않게 됩니다. 기기음교의 물건을 사지않게 되면 저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⁶⁾

그러나 이같은 대응책은 전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복학과 박제가는 검소함이 오히려 산업을 망하게 하였음을 지적하였던 바 있다.

11) 勉菴集, 疏 丙寅擬疏.

12) 卞光錫, 18~19세기중엽 綿布의 流通構造,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의 성과, 형설출판사, 1989, p.110.

13) 윤소정, 위정척사운동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 疏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p.42. 재인용

14) 이항로, 김주희역, 華西集, 1973, p.335.

15) 上揭書, p.336.

16) 李恒老, 華西集, 卷3, 疏劄 辭工曹參判疏.

이처럼 교역을 거부하게 된 위정척사론의 배경에는 물론 유교적 이념이 깊이 내재하고 있었으니, 즉 도(道)를 중시하며 기(器)를 경시하는 사상으로서 억말(抑末)사상과 유교적 금욕주의를 들 수 있다.¹⁷⁾ 억말사상은 말(末) 즉 기술보다 본(本) 즉 도덕 혹은 유교를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말단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인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또한 검소를 지향한 금욕주의는 적어도 위정척사론자들 스스로 이것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청렴결백한 정신과 생활의 미덕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복식제도에 대한 인식과 복제개혁에 대한 반응

1) 복식제도에 대한 인식

위정척사사상가들은 이미 언급한대로 유교사상에 의거한 전통적 사회질서와 예속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성격을 외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복제도라 하겠다. 그리하여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서 당시의 의상제도를 보존하는데 머물지 않고 옛 선왕의 제도로 돌아가 전통복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복제의 개혁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서양문물이 유입되고 서양복식기물이 일반에 점차 널리 사용되어 가던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갑신년 복제개혁령이 내린 이후라 할 수 있다.

위정척사사상가들이 전통복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의복이라는 것에 둔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의미를 표현하기, 몸의 위외(威儀)를 갖추어 이르러 사물과 구별을 이루며, 화이(華夷)와 남녀의 구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오직 의복제도를 변경하는 한가지 일은 더욱 그 의리를 해침이 심하여 지극하게 먼저 복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복이란 선왕들께서 오랑개와 중화를 분명하고 귀천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¹⁸⁾

“하늘은 사람에게 비늘이나 깃털이나 것이나 털을 주지 않고 반드시 옷을 주어 입도록 하였다. 사람이 만물과 다르니 걸부터 나르지 않을 수 없고, 만물과 달리 사람이 되는 것은 위의로써 되는 것이므로, 옛날 성현들이 법도와 이치를 헤아려 옷입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의복제도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쉽사리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전통복제를 고수하고자하는 의지는 그만큼 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통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조선이 중화문물을 보존하며 소중화를 유지하고 이러한 우리의 성숙을 후세에까지 밝히 보여 주기 위해 정통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²⁰⁾ 따라서 비록 옛 제도가 비합리적인 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고하여 보고 애석하게 여겨 버리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근본과 시초를 잊어버리지 않는 충후(忠厚)하고 인애한 마음의 극치라고 하였다.²¹⁾

17)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p.75.

18) 勉菴集, 制一集, 疏, 請討逆服衣制疏 乙未 六月 二十六日.

19) 毅菴 柳麟錫의 思想 - 宇宙問答 -, 서준섭·손승철·신종원·이애희역, 종로서적, 1984, p.46.

20) 勉菴集, 制一集, 疏, 請討逆服衣制疏 乙未 六月 二十六日.

21) 이항로, 김주희역, 華西集, 1973, p.315.

“성인들은 비록 과거와 현재의 사정이 달라져 당연히 개혁해야 할 것에 있어서도 또한 반드시 잊혀지지 아니하여 회고하여보고 애석하게 여겨 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담으로... 산과 용무늬의 곤룡포와 보(繡)모양의 수, 불(黻)모양의 수를 놓은 대례복의 채색이 이미 찬란하지마는 무릎을 가리는 필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모두다 근본과 시초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니 중후하고 인애한 마음의 극치이다.”

반면에 서양 의복을 받아들인다면 편리하고 교묘한 것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마침내 조선인은 소중화됨을 잊고 서양화되어 오랑캐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서양의 것을 수용하면 서양의 정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서 형식적인 제도가 바뀌면 의리도 떠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2) 복제개혁에 대한 반응

이처럼 전통복제가 위협을 받고 서양복제가 널리 퍼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정척사론자들이 주장한 바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서양과 화친해서는 안되며 그들을 공격하고, 서양복을 배척하며, 유교와 유업을 고수하여 전통복제를 유지하고, 복제개혁에 대한 왕명을 거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먼저 서양과 화친하지 않고 대응한다는 것은 비교적 초기의 대응책으로서 서양의 강화침략시 이항로가 올린 상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양구(洋寇)가 강화에 침입하매 선생이 상소하기를 지금 국론은 양론이 분분하고 있는데, 양구를 공격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쪽 사람들의 말이요, 양구와 강화(講和)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쪽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쪽 말 대로하면 온 나라안의

의상의 옛제도를 보존할 것이요 저쪽사람들의 말 대로 하면 온 국민들이 금수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니 이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²²⁾

이처럼 서양을 배척할 뿐 아니라 서양복을 배척하였으니 서양복은 편리하고 교묘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따르는 것이며, 외형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서양에 동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 유교와 유업을 지키고 전통복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르게 할 것과 구체적으로는 사대부의 최고의 예복으로 여겨졌던 심의(深衣) 착용을 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기에는 초상화 가운데 전보다 오히려 심의를 착용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서양의 침입이라는 개방화의 위기의식에서 역으로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아가 복제개혁에 반대하여 이들이 보인 행동들은 왕명을 거부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도(道)가 왕명보다 앞선다는 생각과 중화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차라리 나라가 망하더라도 제도는 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궁극적 목표가 중화의 법을 지키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갑신년, 을미년에 복제개혁이 추진되었을 때 잘 드러나고 있다.

갑신년에 변복령(變服令)이 있자, 유종교같은 이는 의복이 바뀌면 명분이 달라지고 명분이 달라지면 의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보았으니 곧 형식적인 제도가 바뀌면 본질도 바뀌고 만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명과 의리사이에서 왕명보다는 의리가 더 우세하다는 신념을 지녀, 왕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³⁾

22) 上揭書, p.333.

23) 柳重教, 省齋集, 卷34, 甲申變服令後示書社諸子.

“임금의 명령은 신하가 복종하는 것이 상도(常道)이지만, 의리에 옳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하나의 큰 권도(權道)이다.”

김평묵 역시 변복령을 듣고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근거하여 따르지 않는 것은 임금의 과오를 구제해 주는 것이니 충성이요, 머리를 굽혀 따르기만 하는 것은 임금의 과오를 이루어 주는 것이니 죄를 짓는 일이다.’²⁴⁾고하여 왕명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그후 갑신년 변복령은 왕명으로 다시 제도를 복구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위정척사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지난 갑신년에 전하께서 일찍이 소매가 좁은 옷제도를 만드셨다가 곧 잘못임을 깨닫고 폐지하시매 상하 민중들이 대성(大聖)께서 개과천선하시는 도량이 보통사람과 비교 안될 정도로 만만배라고 우러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²⁵⁾

그후 갑오경장이 있는 다음해 을미년에 다시 복제개혁령이 내려지게 되자, 이시기에 복제개혁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린 많은 신하들이 복제개혁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으며 그중 면암의 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직 의복제도를 변경하는 한가지 일은 더욱 그 의리를 해침이 심하여 시급하게 먼저 복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의복이란 선왕들께서 오랑개와 중화를 분별하고 귀천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의복의 제도가 비록 다 옛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화문물이 보존된 바며 우리 나라 풍속을 볼 수 있는 바로서

... 이것을 버린다면 요순분무가 서로 전승해온 중화의 한 줄기를 찾을 수 없게 되고 기사밧 우리 조종들이 중화의 풍속을 가져다가 오랑개를 변화시킨 훌륭한 덕과 큰 공로를 또한 천하의 후세에 밝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급히 덕음(德音)을 내리어 흑의(黑衣)를 엄금하여 옛제도를 복구하도록 하고 모든 여러 법도나 정명(政令)의 이적과 금수의 풍속에 가까운 것은 모두 차례로 폐지하여 없애되 한시도 지체됨이 없도록 하십시오.”²⁶⁾

그후, 을미년 복제개혁령은 다시 철회되기에 이르렀지만, 그 복구가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제도의 복구가 불가피하였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김윤식(金允植)이 중국한대의 급진적인 개혁이 실패한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있듯이 책력(冊曆)은 바꾸고 복제를 개정하는 것이 당대에 급한 일이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²⁷⁾

이상에서 위정척사론자들의 복제개혁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복제개혁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하여서는 차후 개화파들에 의해 단행된 복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 고찰하여 보고자한다.

3. 두발에 대한 인식과 단발령에 대한 반응

1) 두발에 대한 인식

조선후기에 서양세력의 침투와 더불어 언제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소중화인 조선이 서양화되면서 의복을 바꾸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머리를 자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단발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예견되었던 바였다. 그래서 면암(勉菴)은 복제개혁이 있는 후 지금에 와서는 한번 변하여 갑신년 일이 있게 되고 두번 변하여 검은 옷을 입게 되었으니

24) 金平默, 東庵集, 부록 권5, 연보, 갑신7월조.

25) 勉菴集, 制一集, 疏, 請討逆服衣制疏 乙未 六月 二十六日.

26) 上揭書.

27) 金允植, 雲養集, 卷7, 改正朔易服色論.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차츰차츰 단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던 것이다.²⁸⁾

이 무렵 위정척사론자들이 머리털이 소중한 이유를 분석한 바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머리카락은 하늘이 붙여준 것으로 부모를 통해 내몸에 받은 것이니 소중하다.

머리카락은 하늘이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의 몸중에서 윗부분인 머리 위에 붙여서, 사람의 시조에서 시작해 천백 대를 거쳐 할아버지와 부모를 통해 나의 몸에 받은 것이다.²⁹⁾

○ 예로부터 지닌 것에 대한 사람의 정이요 도리이다.

사람의 정이란 옛것은 아끼게되어 있다.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집안에 있어서 오래 전하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소중히 여겨 간직하고 지킨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물로 여겨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기도 하는데 오직 의발에 있어서는 만천년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다른 구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아끼지 않으니 어찌 그것이 사람의 정이며 도리이겠는가.³⁰⁾

○ 상투트는 법과 옷입는 법은 상·하, 천·지와 서로 관계하여 만물가운데 적절하게 드러나 있다. 안으로는 덕성과 더불어 서로 조화되고, 밖으로는 윤리·예의와 더불어 서로 어울리니, 높도다 그 정제되고 엄숙함이며, 밝도다 그 현저히 드러나 밝고 성함이며, 위대하도다 그 소중히 여겨 사람됨을 얻음이며³¹⁾

○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은 위로 친하고 땅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래로 친한 것이다. 사람은 그 모습이 위로향해 있어서 머리털을 뿌리로 삼는다. 반대로 금수는 기어다니므로 머리가 사방을 향하고 꼬리와 깃이 뿌리가 된다. 머리를 깎는 것은 하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예법의 관혼상제중 관례가 가장 앞서는 것도 이 때문이며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를 깎아 천형(天刑)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에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³²⁾

○ 머리털을 한데 묶어서 상투를 튼 다음에라야 위로는 천도에 응하여 하늘에 사부치는 모습을 이루게되는 것이고 수만올의 머리카락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은 만가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천하통일의 상징이다.³³⁾

○ 머리털을 깎으면 진리가 망한다. 머리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유자가 만일 머리를 깎는다면 하늘을 더럽히고 부모를 소홀히하고 성인을 모욕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르면 살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³⁴⁾

2) 단발령에 대한 반응

두발에 대한 개혁으로 단발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갑신정변 때의 일이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후 신 정부의 정치강령을 발표하였는데 갑신일록에는 14개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서재필 자서전에 의하면 80여조목이 더 있어 그 중에 국민의 단발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28) 勉菴集, 制一集, 疏, 請討逆服衣制疏 乙未 六月 二十六日.

29) 毅菴 柳麟錫의 思想 -宇宙問答-, 서준섭·손승철·신종원·이애희역, 종로서적, 1984, p.46.

30) 上揭書, 47.

31) 上揭書, 46.

32) 금장태. 고광직, 유학근백년, 박영사, 1984, p.122.

33) 上揭書, p.122.

34) 上揭書, p.123.

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 실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또 다른 개혁활동이 시작되어, 개혁추진세력으로 들어선 김홍집내각은 1895년 11월 단발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단발령으로 인하여 조선은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단발령이 내려졌을 당시의 장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지매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하고 노해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며 형세가 장차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으며 경무사(警務使) 허진(許進)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또한 인가에 들어가서 조사해서 찾아 헤매니 깊숙이 숨어있지 않고서는 머리를 깎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손님으로 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모두 상투를 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나아갔다.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뽀뽀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 놓아서 장발승 같았는데 오직 부인네와 어린아이들은 깎이지 않았다.”³⁵⁾

이처럼 개혁세력들이 단발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위생에 이롭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개화의 상징으로서 보수적 사고를 타파하려는 개혁파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발령을 내린 이유가 위생 때문이라는 사실은 단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머리를 깎는 것이) 위생 때문이라면 남자만 위생을 따지고 여자는 위생을 따지지 않는 것이니 이 어찌 진정이라 하겠는가. 또 서양사람이 수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천리(天理)를 해치면서 살고 있으니 위생에도 방해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³⁶⁾

또 신익균(申益均, 1879~1939)은 머리깎는 것이 위생에 이롭다는데 반박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빨리 죽자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³⁷⁾

그러나 남자의 두발양식은 전통형식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개혁파들은 이러한 전통형식을 파괴하기 위하여 단발령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의미를 갖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특히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거부하여 소를 올리고, 혹 대항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소극적으로 은둔생활에 들어서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대하였다.

당시 최익현 같은 이는 ‘나의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髮不可斷)’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또 학부대신 이도재는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좋아서 한응큼의 짧은 머리를 아껴서 국가 정책을 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단지 여러 차례 생각하여 헤아려 보아도 그 이로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견해가 뚜렷해 졌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속아서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리고 사임하였다.³⁸⁾

그 외 머리를 자르려하자 장도를 내어 자신의 목을 찌르는 자도 있었으며, 대개의 유학자들이 목은 잘라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의병이 쫓기하게 되었으니 1895~1896

35) 黃玿, 梅泉野錄, 이장희역,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3, p.195.

36) 毅庵 柳麟錫의 思想 一宇宙問答-, 서준섭·손승철·신종원·이애희역, 종로서적, 1984, p.47.

37)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56~57.

38) 黃玿, 梅泉野錄, 이장희역,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3, p.195.

년의 초기의병운동이 봉기된 원인은 민비 시해와 단발령 강행에 있었던 것이다. 이직진은 의병의 이유와 망명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날 서양과 일본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깎이는 재앙을 당하자, 그날에 뜻있는 선비 어진 사람들이 의암(毅菴)선생을 따라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만리 밖으로 나라를 떠났으니, 만리 밖으로 나라를 떠난 것은 옛날의 법도를 보전하여 영원한 기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이 단발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항은 그 당시 유교적 사고에 젖어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신체나 머리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머리털을 자르는 것은 곧 불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발령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효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털을 깎는 것이 곧 하늘과 부모와 성인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곧 진리를 배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관파천(1896. 2)후 단발령은 국왕의 본뜻이 아니었다하여 다시 철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하게도 성상께서 마음을 돌이켜 의복과 깎까지 아울러 들어 편리할 대로하라는 분부가 있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하늘의 해가 저들 밝아지는 때이겠습니까.”⁴⁰⁾

그후 사실상 단발령이 효과를 거두게된 시기는 10여년이 지난 광무 10년(1906)이 되는 때로 보인다.

“농부관원으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한 자가 많았으나 대신 권중현이 퇴사(退仕)하라고 명령을 독촉하여 이에 모든 주사들은 모두 삭발하였다. 또한 각학교 많은 생도들도 많은 수가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으나 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또한 장정 수백 명을 징제하여 감옥에서 삭발시켰다. 이에 서울 장안에서는 귀천을 막론하고 삭발하니 위생상 고루 이익이 있었다.”⁴¹⁾

IV. 결 론

이상에서 위기에 처한 조선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위정척사론자들의 여러 사상 중에서 특히 복식과 관계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먼저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역을 반대하여 자급자족하며 금욕생활을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 유교적 사회규범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전통복식제도를 고수하고 단발령에 대하여 항거하는 행동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들 각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양의 물품을 배척하는 행위는 비교적 위정척사사상에의 초기단계에 나타난 반응으로서 교역을 반대한 이유로는 생존경쟁에서 열세에 놓인 조선산업의 꺾임을 두려워한 것과 교역의 유입과 더불어 양학과 양교가 유입되어 조선인이 서양화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또 교역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주자학적 사상이 내재해 있어 도(道)를 기(器)보다 중시하여 기교나 기술이 뛰어난 서양물품을 거부하는 억말사상과 유교적 금욕주의를 들 수 있다.

39) 李直愼, 習齋集, 卷39, 書贈海西諸君子.

40) 勉菴集, 疏,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

41) 黃珪, 梅泉野錄, 이장회역,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3, p.332.

2. 위정척사론자들은 유교사상에 의거한 전통 사회질서와 예속(禮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제의 개혁을 반대하고 전통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몸의 위의(威儀)를 갖추고 화이(華夷), 남녀, 귀천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서양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조선인이 서양화되어 오랑캐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갑신년과 을미년에 복제 개혁령이 있었을 때에 왕명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중화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갑신년, 갑오개혁의 복제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복제를 복구하라는 명이 내려지게 되었다.

3. 단발령은 개화파에 의해 갑신정변 때와 그후 1895년에 다시 시행된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위생에 이롭다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통형식을 파괴하고 개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위정척사론자들에게 있어 단발이란 특히 예를 버리고 도를 파괴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소중함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복제개혁이나 단발령이 위정척사론자들의 의지대로 저지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을 상실하는 것이 곧 조선인인기를 포기하고 오랑캐가 되고만다는 일반백성들의 위기의식이 이들의 의견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 강재언, 신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4.
- 강재언외, 한국근대 사회와 사상, 증원문화, 1983.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병인, 신미양요사.
-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금장태 · 고평직, 유학근백년, 박영사, 1984.
- 금장태 · 고평직, 속 유학근백년, 여강출판사, 1989.
- 김세규, 중앙 김평묵 연구, 논문집4, 동국대 경주캠퍼스, 1985.
- 김영작, 한말내셔널리즘연구-사상과 현실, 청계연구소, 1989.
- 김창주, 한국근대의 민족의식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7.
- 김평묵, 重庵集.
- 김한주, 조선시대 수공업연구, 조선경제사탐구, 범우사, 1990.
- 김호성, 한말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시론적 검토, 서울교대논문집 10, 1977.
- 문소정, 위정척사운동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疏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 박민영, 의암 유인석의 위정척사운동 -昭義新編을 중심으로-, 청계사학3, 1986.
- 박종근, 조선 근대에 있어서 민족운동의 전개,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1983.
- 변광석, 18~19세기중엽 綿布의 流通構造,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의 성과, 형설출판사, 1989.
- 서준섭 · 손승철 · 신종원 · 이애희역, 의암 유인석의 사상 -우주문답-, 종로서적, 1984.
- 유인석, 毅菴集.
- 유중교, 省齋集.
- 이광린, 진용하 편저, 사료로 본 한국 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 이이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검토 -화서 이항로의 소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8, 1977.
- 이직진, 翳齋集.
- 이택휘, 화서 이항로의 척사위정론 연구, 서울교대논문집19, 1986.
- 이항로, 김주희역, 華西集, 한국명저대전집, 1973.
- 이현중 편저, 한국 근대 민족의식의 맥락, 아세아문화사, 1979.
- 이희환, 위정척사론연구의 검토, 군산대논문집

9, 1984.

- 조동걸, 한국근대사의 시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9.
- 진덕규, 칙사위정론의 민족주의적 비판의식, 이대한국문화연구논총31, 1978.
- 진용하,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부, 1989.
- 최익현, 면암집, 고전국역총서, 경인문화사, 1978.
- 황현, 梅泉野錄, 이장희역, 대양서적, 1973.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hought of costume of the people who advocated the Wejung-chuksa.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The action to boycott western goods was the early response in the Wejung-chuksa Thought.

The reason were in fear of ruin in chosun industry and worry about the westernizing the

Korean.

2. The people of the Wejung-chuksa had the conservative character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al public order and the costume. They thought that costume have a role to distinguish between man and woman, the rich and the poor and so on. Therefore acceptance the western costume style meant that the Korean became a savage. So that they rejected the King's order about the dress-system reformation in 1884, 1895. That pointed that their ultimate purpose was to keep the traditional rule.

3. In appearance the purpose of the short-hair law was the good for health. But It meant to destroy the traditional order and to symbolize the civilization. Especially the short-hair in the people of Wejung-chuksa meant the destruction of the traditional rule and casting away the courtesy. Therefore they wanted to keep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costume.